

# 사료낭비, 관리소홀이 가장 큰 원인

□ 취재/김동진 기자

**닭**을 사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을 올리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생산비 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농가는 없다.

양계장에서 연간 지출되는 비용을 보면 사료구입비와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채란농장의 사료구입비는 생산비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료에서 낭비되는 요인을 최대

한 줄여나간다면 생산성 향상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양축가들은 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생산성향상을 기하기 힘들다고 토로하지만 대부분 사료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때 원료생산국의 단가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양계사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옥수수로

착색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수수의 사료가치는 대단히 높게 평가되는데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미국위주의 사료원료 시장이 중국쪽으로 급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따라 양계업계는 원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계산물 생산비 증가요인을 파악, 이에 대처하는



▲벌크를 이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둘 경우 쥐의 서식지가 되기 쉽다.

자세가 필요하다.

또 생산농가들은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해 사육수수 조절 등 국제경쟁력에 대비해야 됨은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경영상 소비되고 있는 사료에서 몇 %를 사양관리 기술로 절약해 나갈 수 있을까를 검토해야 한다.

연간 소비되는 총 양계사료의 5~10% 정도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의 재래식 농장을 방문하다 보면 여름철과 겨울철을 대비해 환기시스템을 적절히 이용하여 온도조절을 하거나 사양관리 계획에 따라 균일도를 맞추는데 전력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비용절감 명분으로 싼 사료

만을 구입한다든지 구태의연한 재래식 사양기술 방법을 농장에 적용해가며 수입이 적을 경우 부화장이나 중추농장을 원망하며 시설 개선 측면과 관리에는 소홀한 농가들이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전자보다 후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는 양축가들의 자질향상을 통해서만이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래식 농장을 운영하는 채란농장을 방문하여 사료관리 실태를 들어 보았으나 대부분의 농가에서 사료허실의 개념을 망각한 채 운영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규모가 작은 농장일수록 재래식 사양기술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설때문인데 굳이 자동화를 안했다라도 세심한 주위를 기울이면 생산성 향상을 기할 곳이 의외로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에



▲기울어져 내린 모이통으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료 허실량이 늘어난다.

위치한 A농장은 2개동에 5,500수를 기르고 있는 소규모 농장이다.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다는 A농장은 올해 중추계를 처음 입식시켜 23주령에 도달했는데 중추구 입하면서 부터 문제성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계군간의 차이가 심했으며 초기폐사로 인해 300마리의 중추닭을 산란계와 함께 기르고 있었다.

초산일령이 지났는데도 50% 이하의 산란율을 보이고 있었고, 산란초기 사료를 먹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란중기사료를 급여하고 있어 사양관리계획에 따른 개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사료구입은 사료회사 대리점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데 벌크통이 없어 창고안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쥐들에 의한 사료낭비의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쥐들의 서식지를 마련해준 느낌을 받았다.

A농장주인에 의하면 쥐들이 다니는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마땅한 구서대책을 마련해 본적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사료허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함을 느꼈고



▲콘크리트 바닥에 의해 희게 널려져 있는 것은 흙이 아닌 사료이다.

급여방법에 있어서도 양동이로 사료를 담아 퍼주는 방법을 쓰고 있어 균일도를 유도하기 보다는 자유급식을 통한 사료허실량 증가를 가중시켰다.

포천군 포천읍에 위치한 B농장의 경우 반자동과 재래식을 겸비한 상태에서 1만8천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A농장보다 규모가 좀 크다는 것과 자동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뿐 대동소이함을 보여줬다.

농장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2시경이었는데 계사바닥에 흰 사료가루가 즐비했다. 닭이 쪼으면서 흘리는 사료는 어쩔 수 없다지만 급여기의 수평이 서로 틀려 손실되는 사료량이 많았으며

특히 U자형 급수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료와 물을 번갈아 섭취하면서 부리를 통해 급수기에 가라앉은 사료를 발견할 수 있었고, 청소로 쓸러간 하수구에서는 사료가 부패되어 심한 악취가 흘러나왔다.

디비킹을 실시한 닭에서 급수기형태에 따라 허실되는 사료량을 보면 표1과 같다.

표1에서 보면 니플 급수기가 사료낭비를 최소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니플급수기로 바꿀 계획이 없느냐는 문제를 놓고 B농장 주인은 아는 농장에서 이를 설치했으나 다수의 폐사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

표1. 급수기 형태에 따른 사료허실량

급수기 형태	수당년간 사료낭비(g)
U형 깊은 급수기	1,620
V형 급수기	855
니플 급수기	90

자료 : 미국 Rutgers대학

의 선례를 들으며 니플급수기는 재래식 계사에 적용키 어렵다는 말을 해주었다. 이처럼 자기의 노력을 덜 들이고 남의 얘기만을 따라가려는 의식이 대다수의 농가에 만연해 있음을 의심하게 된다.

단지 농장주인들은 빈 지대처리 문제를 지적했는데 빈 지대는 소위 고물장수들에 의해 1포대당 10원 정도의 값을 받아 처리하는 실정인데 사료회사 관계자들은 사료포대를 재활용하려

해도 오염확률과 파손문제 때문에 다시 쓸수 없다는 말을 들려주어 빈 지대의 재활용 문제도 시급함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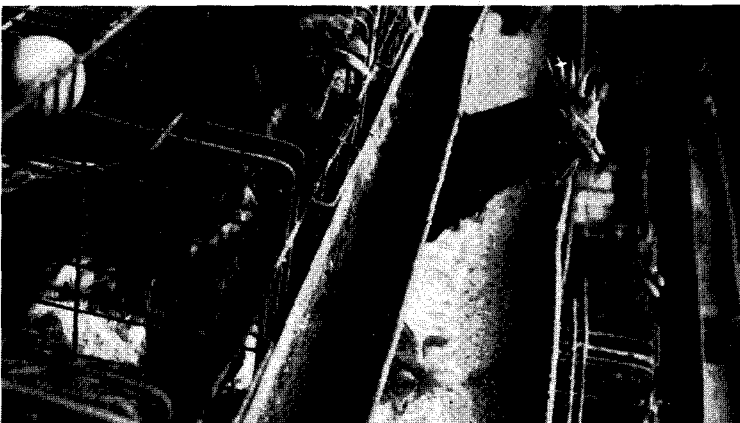
앞에서 농장의 관리 실태를 살펴 왔는데 3만수 양계장에서 1일 1g씩의 사료를 절감한다면 1일 3kg, 1개월 90kg, 1년 11톤, 10년 110톤이란 결론이 나오는데 가격(kg당 200원)으로 환산하면 2,200만원이라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처럼 사료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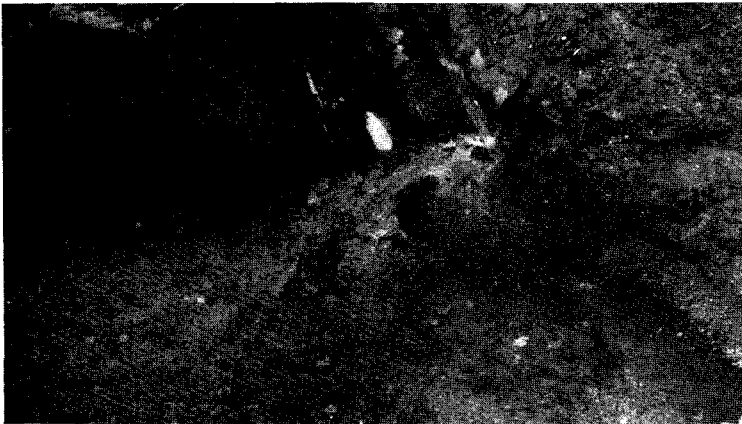
두 농장을 위시로 사료허실되는 요인을 종합해 보면 온도, 환기 등 외부적 환경은 물론 급수기, 모이통 등에 의한 기자재 설치상태에서 오는 허실 또 구서대책의 소홀 등에서 오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앞으로 다가올 동절기에 대비해 방한시설을 충분히 해야한다. 단, 온도유지만을 치중하다보면 자칫 환기가 불량해질 염려가 있지만 계사내의 가장 경제적인 온도는 21~26°C인데 이하로 내려가면 갈 수록 닭의 체열손실량이 많아져 사료낭비의 원인이 되며, 온도가 올라가면 사료섭취량이 떨어져 난중과 산란율이 저하됨을 인식해야 한다.

또 U자형 플라스틱 급수기를 니플 급수기로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 국내 케이지에 니플급수기를 설치할 경우 부작용의 발생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매일 2~3g의 사료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필요하며 먹이통에 물을 토하여 사료를 부패시키는 경우가



▲U자형 급수기는 인력낭비 뿐 아닌 사료허실의 온상이기도 하다.



▲물과 함께 하수구로 흘러가는 내용물 중 대부분은 사료이다.

있고 청소작업으로 인한 인력낭비를 가져온다.

사양가들은 사양계획대로 일지를 기록하며 항상 계군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평균보다 10% 이상 적게 키울 경우 닭의 성장이 고르지 못하고, 폐사율이 증가하며, 성성숙이 너무 높아져 생산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표준체중 보다 크게 키우면 유지사료량 증가, 지방계 발생을 증가, 탈항으

로 인한 폐사율 증가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모이통은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모이통을 고정시켜주는 철재가 약해 늘어질 경우 닭이 사료를 먹을때 안·밖으로 허실되는 양은 더욱 늘어난다. 또 모이통 바닥에 붙은 사료를 긁어주어 부식과 질병이 오기 전에 먹어 없애도록 해야한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구서대책인데 집쥐 2마리와

새양쥐 5마리는 일년에 산란계 한마리가 먹는 사료량만큼 먹는다고 보고하고 있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벌크통을 이용한 급이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는 사료가격이 쌀 뿐만 아니라 인력낭비를 막을 수 있다.

몇가지 대책을 살펴봤는데 결국 양계농가들의 사양관리 소홀에서 오는 허실량은 너무나 많다. 유럽에서 갈색산란계의 1일 평균 사료섭취량이 114g으로 발표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120g으로 나타남을 볼때 우리가 아직도 많은 사양관리상의 개선여백이 있음을 말해주는데 위에 살펴본 A, B농장 특히, 개방계사를 운영하는 농가에서는 다시한번 주변정리를 하고 생산성향상에 스스로가 앞장선다는 생각을 갖고 양계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 [양계]

## 양계 용어 정리

### 24. 강제환우(強制換羽) :

강제환우(forced molting)란 닭이 초년도 산란이 종료된 후에 인위적으로 닭에게 스트레스를 가하여 털갈이를 시켜 털갈이 후 높은 産卵率을 얻도록 하는 조치이다.